

■ 정부 구상 세종시, 기업중심 경제·과학도시로 윤곽

롯데 계열사 이전 검토... 삼성·LG도 관심

KAIST·고려대와 MOU...서울대병원 입주 기정사실화

민관합동위 대안 마련전 정부안 나와 거수기 우려도

정부가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안 마련에 본격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그리는 세종시 밑그림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16일 민간위원장을 선출하고 첫 회의를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간위원장은 송석구(69) 가천의대 총장이 선출됐다.

민관합동위는 앞으로 기업·대학·의료복지·문화·과학연구 등 분야별로 소관부처 차관의 보고를 듣고, 자속성 보장 방안을 마련한 후 내달 최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과거에 얽매어 미래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끼칠 수도 있는 범용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대안 제시까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생산적이고 압축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 "신속하고도 생산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들은 물론 정부 지원협의회와 기획단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허브,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울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학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형태로 가고 싶다"고 했다. 첨단과학 및 기술기업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교육·문화·예술·복지 기능이 첨가된 형태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행정 중심도시 대신 기업 중심 경제·과학도시로 바뀌는 것이다.

기업도시의 형태와 관련, 각각 삼성전자와 LG전자의 LCD 공장이 있는 아산과 광주,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전자산업단지가 있는 구미 등과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3곳 이상의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 연구소가 세종시 입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롯데그룹은 일부 계열사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삼성과 LG그룹 계열사들도 정부가 내놓을 세제 및 토지 지원 등을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또 세계적 대학과 병원 등도 들어선다. KAIST와 고려대는 바이오메디컬과 에너지 연구 등을 위해 각각 50만평과 40만평의 땅



정운찬 국무총리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이인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이 16일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잠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마련키로 하고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울대병원 입주는 기정사실화한 모습이다.

해외 첨단기술 기업과 세계적인 대학과 병원도 세종시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국 보스턴, 독일 뮌헨과 프라이부르크, 중국 상하이 등 현지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다. 보스턴에서는 대학과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뮌헨에서는 태양광업체 등 40여개 기업들과 개별 상담을 벌였다.

상하이와 프라이부르크에서는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관합동위가 대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정부안이 드러나면서 민관합동위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대기업 분사 이전 외에 나온 투자 실적은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활동에 따른 성과여서 현 정부가 몰타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대통령 “창업·중기 도전이 청년실업 해법”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청년 취업은 우리 청년들이 패기를 가지고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중소기업과 해외 일자리에 더 많이 도전하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2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청년 취업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실업자들은 늘어나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지금도 20만명 넘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제 경험과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배울 것이 참 많다”며 청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권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

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의 의미를 나 자신 살아가면서 더 실감하고 있다”며 “청년기에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특권”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기회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창업 지원, 산학연계형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시스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에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일자리야말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의 시작이자 끝이며, 또한 최고의 복지다. 나와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檢, 정세균 대표 소환 일정 조율

천신일 당비 대납 의혹 제기

이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천신일 세종시모여행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당비를 대신 냈다는 의혹을 제기,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에게 소환조사 방침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과고발인 자격인 정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언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을 뿐 특정한 날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민주당은 천 회장

이 이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천 회장과 이 대통령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민주당이 6월 고발한 사건도 함께 조사중이다. 천 회장은 이날 초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검찰은 주요 관계자의 소환조사가 끝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기한 이들 고발사건을 한꺼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천 회장은 대선 직전이었다던 2007년 말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특별당비 3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정치예금을 담보로 제시했고 대신 이 대통령 소유의 서울 양재동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내년 지방중기 지원 자금 전액 삭감”

김재균 의원 밝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지원자금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이 중소기업청의 내년 예산안을 분석, 16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은 올 자금 사업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상자금이었던 ‘지방중소기업경쟁력향상자금’ 3천억원과 ‘지방기술사업화자금’ 1천억원 등 총 4천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비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특화산업에만 한정해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

을 긴급 편성할 바 있다. 이 지방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지난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94.3%로 전체 중소기업 자금 집행률 93.5%보다 높을 뿐 아니라 예산보다 많은 6천100억원이 신청되는 등 지방 중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은 이 자금에서 지난 10월말 현재 98개 업체가 548억원(광주 50개 업체 265억원, 전남 48개 업체 283억원)을 지원받았다. 더욱이 이 자금의 지역별 집행 점유율은 광주 7%, 전남 7.5%로 전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점유율 광주 2.7%, 전남 3.8%보다 크게 높아 이 자금의 지원이 없을 경우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달 9일까지 처리” “임시국회 열자”

여야 예산심의 조율 착수... 난항 예고

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새해예산안 심사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브리핑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의 제에 대해서는 현안을 놓고 조건 없이 서로 얘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에 따라 원내대표 회담에서 예산안을 비롯해 정국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와 미디어법, 노동관계법, 검찰개혁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늦어도 내달 9일까지는 예산안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와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국회법에 정해진 12월2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늦어도 12월9일까지는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서민·사람 중심의 예산에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하루속히 통과시키기를 희망하지만 안타깝게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자료로는 도저히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예산 기일을 타협할 게 아니라 정부에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4대강 예산과 관련, 세부 예산내역이 제출되지 않는 한 국회 국토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한 채 자유선진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등과의 야권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또 문방위의 경우 미디어법 재개정 논의를 위한 협의체법을 본격 가동해야 예산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4대강 예산과 관련, 한나라당은 3조5천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지만 민주당은 1조원대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 ▶ 펜션부지(광주호상류-가든식당, 과수원, 입야) 34,830㎡ 매매가 3.3㎡당 12만원
- 농지(무안군 운남면) 23,600㎡(바닷가,계획관리지역) - 매매가 3.3㎡당 20만원
- ▶ 대지(신촌동) 764㎡(버스승강장전, 전철역 5분거리) 매매가 ㎡당 36만원(원투를, 빌라, 물류창고적합)
- 고시텔(전대후문 체육공원 인근) 대 282㎡/건 560㎡ - (최근준공) ㎡52(㎡당 월임대료 23만원)매매가 8억5천
- ▶ 대지(북구 신안동)402㎡(물류창고적합) 매매가 3.3㎡당 150만원
- 상가주택(오치동 대단지 아파트 입구) - 대 496㎡/건 1487㎡ (6층건물) 매매가 17억
- ▶ 입야(남평읍 우산리) 16,811㎡(계획관리지역) 매매가 4억5천
- 농지(충주동-광주호상류)전 1,927㎡ - 각종 유실수 100여 주식제, 매매가 ㎡당 9만5천
- ▶ 가든식당(월출산국립공원 입구) 7,665㎡ 식당, 숙박업, 단란주점, 체육시설, 농장 모든시설 허가 필 - 매매가 3.3㎡ 당 32만원

경매부동산상담, 대출상담, 각종부동산투자상담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

Citi 신용대출 직장인 사업자

한국씨티은행(주)

2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

대출대상 - 직장인(또는 배우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대출금액 - 최저 200만원~최고 5,000만원

대출기간 - 1년 ~ 최장 4년까지(6개월단위)

대출금리 - 100만원당 1년 만기 상환시 월 4천 500원부터

신용도를 관리해 드리는 채무통합서비스

타 사에서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고객님의 더 나은 신용도를 열어드리는 채무통합 서비스! 취급수수료 면제 및 월 납입금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씨티파이낸셜 전화상담 010-7167-3838

한전원격제어 판매(한정수량) 한전지원금 최대 131만 6천원

초절전 귀뚜라미 거꾸로 냉난방기

지금 바로 기회! 사업추진을 위한 귀뚜라미만의 혜택!

- 신한카드 Hi-Save 선 포인트 결제 최대 100만원
- 국민카드 최대 70만원
- 할부금융 최장 36개월 할부

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귀뚜라미가 제일이네~

100% 비용처리

귀뚜라미 냉난방기 경매매입비 감면

소형 시스템 에어컨

40년 전통의 냉방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귀뚜라미!

국내 아산공장 순수제작 유제품 용이

* 설치장소 : 학교, 부대, 소방서, 장애인복지관, 교회, 병원, 애덕원, 미술관, 학원, 식당 등

Kiturami 귀뚜라미냉난방기호남총판 062) 252-2900